

보건소 결핵치료 중단자에 대한 추구조사연구

인천간호 논문집 2집 pp. 279~308 1982.

최영수

본 연구는 1시 3개 보건소 결핵실에서 1981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중 치료중단으로 퇴락처리된 결핵환자 249명을 대상으로 관리카드를 분석하고 추구조사로서 가정방문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.

1. 결핵실 퇴락자중 치료중단으로 인한 퇴락율은 33.7%였다. 치료중단자의 가정방문 결과 사망이 3.8%, 전출 28.3% 주소불명이 29.7%, 부재가 9.0%로 추구조사가 불가능했던 자는 70.8%였다.

2. 등록 후 치료를 중단한 시기는 3개월 이내가 22.9%, 6개월까지의 누적율이 46.2%였으며, 12개월까지는 73.1% 18개월까지의 누적중단율은 93.2%였다.

3. 등록기간중 규칙적으로 수약했던 사람은 55.0%였다.

4. 치료중단 이유로는 개인 및 환경적인 이유가 47.8%, 질병이 회복되었다고 판단하여 중단한 경우가 27.8%였으며 보건소측에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것이 20.0%였다.

5. 면접이 가능했던 62명 중 치료재개율은 30.0%였으며 치료중단후, 진단검사를 전혀 안한 환자는 65.0%였다.

치료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용한 기관은 약국(38.9%), 병·의원(27.8%), 보건소(22.2%)순이었다.

6. 치료를 결석 중단하는 이유는 증상없거나 나은것 같아서가 45.2% 개인적 사정이 37.7%였다.

본 연구결과, 보건소에서는 등록된 결핵환자에 대하여 중단율을 낮추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며, 동시에 중단퇴락자의 추구관리 대책도 요구된다고 하겠다.